“혁신적 상상력으로 동국대 변화 이끌겠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15일 윤재웅 총장 취임식
창의 도전 등 3대 핵심 가치 강조
명상교육 강화 등 건학 사업 추진
진우 스님 “인재 육성 최선” 당부
‘동국 역사’ 정규강의로 학생 소통

“사회 · 경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제 우리 안의 가능성을 믿고 내부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존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혁신적 상상력’ 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4년 동안 이 혁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윤재웅 동국대 제20대 총장의 취임 일성은 ‘혁신적 상상력’ 을 통한 학교 변화와 발전이었다. 그는 혁신적 상상력으로 동국대를 창의성 있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동국대는 3월 15일 본관 3층 중강당에서 ‘제20대 윤재웅 총장 취임식’ 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 경주 정각원장 철우 스님, 윤재웅 총장, 민병덕 이사, 박대신 총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국대는 3월 15일 본관 3층 중강당에서 ‘제20대 윤재웅 총장 취임식’ 을 개최했다. 사진은 윤재웅 신임 총장이 교기를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이양받고 있는 모습.

이날 윤 총장은 10분 가량의 취임사를 통해 향후 4년간의 청사진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특히 윤 총장은 ‘혁신적 상상력’ 을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통해 발현시킬 것을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새롭고 즐겁고 엉뚱한 상상을 좋아한다”는 윤 총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경직되고 권위적인 문화에서 나오지 않는다. 창의와 도전정신에 기반을 둔 탈권위의 부드러움은 조직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대학을 보다 기품 있게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4년간 동국대를 창의성이 살아 숨 쉬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개방과 협력’ 의 철학을 교육, 연구, 행정 전 분야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다전공제도, 학생 설계 전공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 학생 지원 포털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재학생의 AI · SW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전공 기반 AI융합교육을 확대해 미래 사회의 환영받는 인재가 되도록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고하겠다는 게 윤 총장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첨단 신기술 분야 정원 증원 추진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과의 M&A 추진 △수영장 부지 기숙사 개발사업 △로터스관 건립을 비롯한 각종 신축사업 △우수 교원 적극 채용 및 연구 지원 강화 △교원 · 직원 인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 등을 향후 계획으로 제시했다.

윤 총장은 “생활불교, 사회불교의 구현 및 건학이념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차별화된 명상교육과 석전 박한영 기념사업, 디지털 대장경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1000억 기부금 모금, 교육 수익사업 확충, 대학 창업펀드 조성, 기술 이전 수입 확대를 통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학내 구성원에게는 좋은 질문을 학교에 던질 것을 요청했다. “최근 챗GPT를 사용하며 질문 수준이 대답의 수준을 결정함을 알았다”고 술회한 윤 총장은 “기술의 발전 이전에 인간의 수준 높은 질문이 계속 돼야 인류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동국대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수준 높은 질문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그 질문을 통해 동국대는 더 좋은 대학,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 에서 ‘호모 퀘스천스’ 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지 모른다. 그 길에서 누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는 좋은 질문을 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면서 “질문하는 동국대, 소통하는 동국대,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국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 이라는 건학위원회 총재 자승 스님의 말씀처럼 동국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건학이념에 깊은 사명감을 지닌 윤 총장이 취임했다. 동국대를 세계 속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신임 총장의 리더십과 열정으로 구성원 모두가 교육, 연구, 사회공헌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다. 앞만 보면 달려가지 말고 좌우를 살펴가면서 구성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부단히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취임 이후 윤 총장은 직접 교양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일반교양 비대면 과목인 ‘동국의 역사와 인물’ 을 직접 강의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앞으로 15주간 동국대 온라인 강의교육 사이트인 ‘이클래스’ 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이다. 수강생은 학부생 995명이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한다

조계종 오는 4월 19일 출범법회
4월 28일 마애불 입불 기도입재
홍보 리플렛, 모연문 전국에 배포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주요사업인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천년을 세우다’ 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 을 세워서 ‘미래 천년’ 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천년’ 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미래 천년’ 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이에 앞서 조계종 미래본부는 지난 1월 11일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와 명상센터 건립 불사의 범불교적 동력 결집을 추진해왔다. 4월 19일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을 통해 각종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해 온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에는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에서 진우 스님과 경상도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도입재 법회’ 가 봉행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 미래본부는 전국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접수를 독려하는 명부와 ‘천년을 세우다’ 를 알리는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사찰에 발송했다. 기도접수는 100일 10만원, 1년 30만원, 1000일 100만원으로 나눠 접수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모연문을 통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라며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불자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등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사과하라”

4대 종교, 3월 14일 기도 봉행
‘꼬리 자르기’ 수사 강력 비판도

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과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 · 평화위원회, 천주교수도회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등 4대 종교 지도자들은 3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 면담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4개 종단 기도회’ 를 개최했다.〈사진〉



4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20여 명이 동참한 이날 기도회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회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혜문 스님은 “이태원 참사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는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업보가 될 것”이라면서 “격식과 형식보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권력과 정치보다 국민의 슬픔을 헤아리는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대 종교별 기도가 끝난 후, 동참자들은 대통령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눈을 뜨고도 막지 못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면서 대통령 사과와 조사기구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경찰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 로 끝이 나고 국회 국정조사는 반쪽자리로 마무리 되었지만 159명의 국민이 길 위에서 죽어간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만나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도록 대통령이 결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명법사, 난치병 어린이에 자비나눔 실천

3월 15일, 복지재단에 천만원

명법사 주지 화정 스님은 3월 15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화정 스님은 “ ‘온 겨레, 전 인류, 만중생과 성불인연을 지으라’ 는 용성조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신도들의 공덕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이번 후원에도 치료가 절실한 아동들에게 기금이 쓰이면 좋겠다. 아이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고 희망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 캠페인 모연은 연중 진행된다. 하나은행 271-910005-95104 (예금주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6334-2217 임은호 기자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2567 부산 연등축제 특별전
BUSAN LOTUS LANTERN FESTIVAL

부산연등축제
www.bba48.or.kr

2023년
3월 24일~4월 9일(17일간)
(전통등 전시, 지화공예전, 불교사진전)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관





개막점등식(소회일)
4월 28일(금)
송상현광장

부산연등회(대회일)
5월 13일(토)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부산연등문화제
4월 28일(금)~5월 14일(일)
송상현광장

주최_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_ 2567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
문의 _ 전화 : 051)867-0501~3 전송 : 051)867-0504
후원 _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